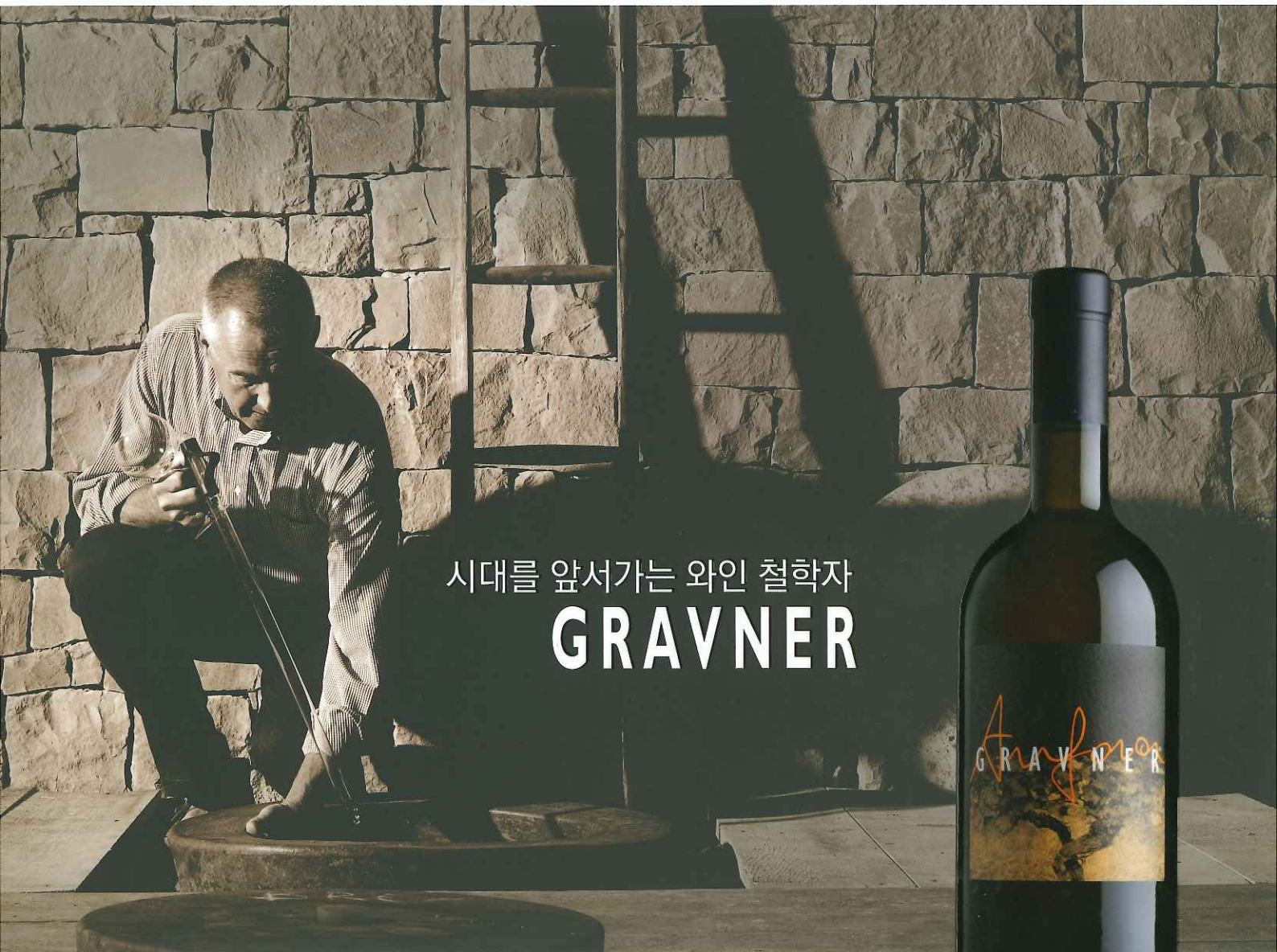


WINE REVIEW

WINE, GOURMET, BEVERAGE, CULTURE, LEISURE, TRAVEL
December 2013



시대를 앞서가는 와인 철학자
GRAV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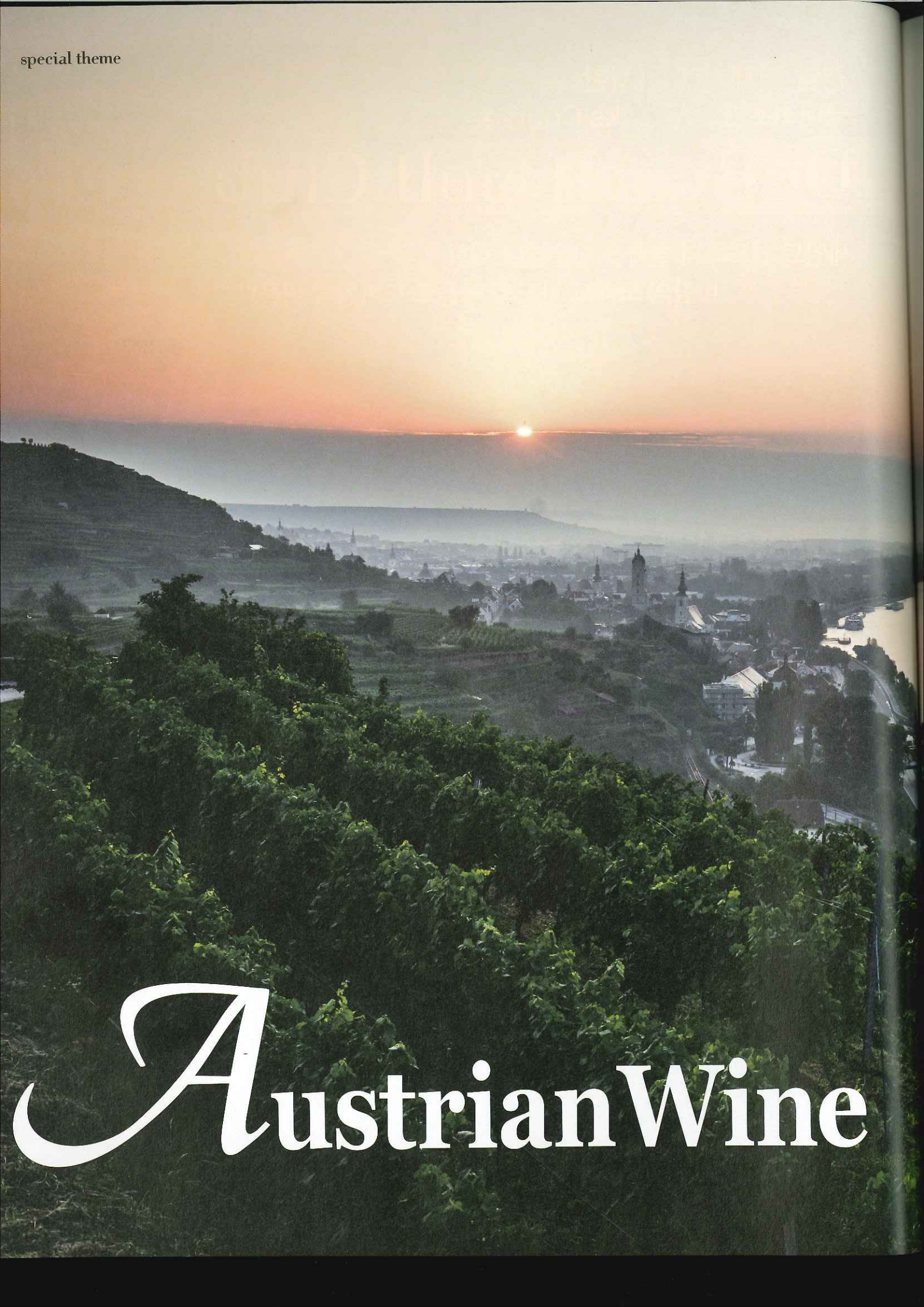
SPECIAL THEME

화이트 와인의 정수, 그뤼너 벨트리너
오스트리아 와인의 세계

SPECIAL ISSUE

아르헨티나 와인 시음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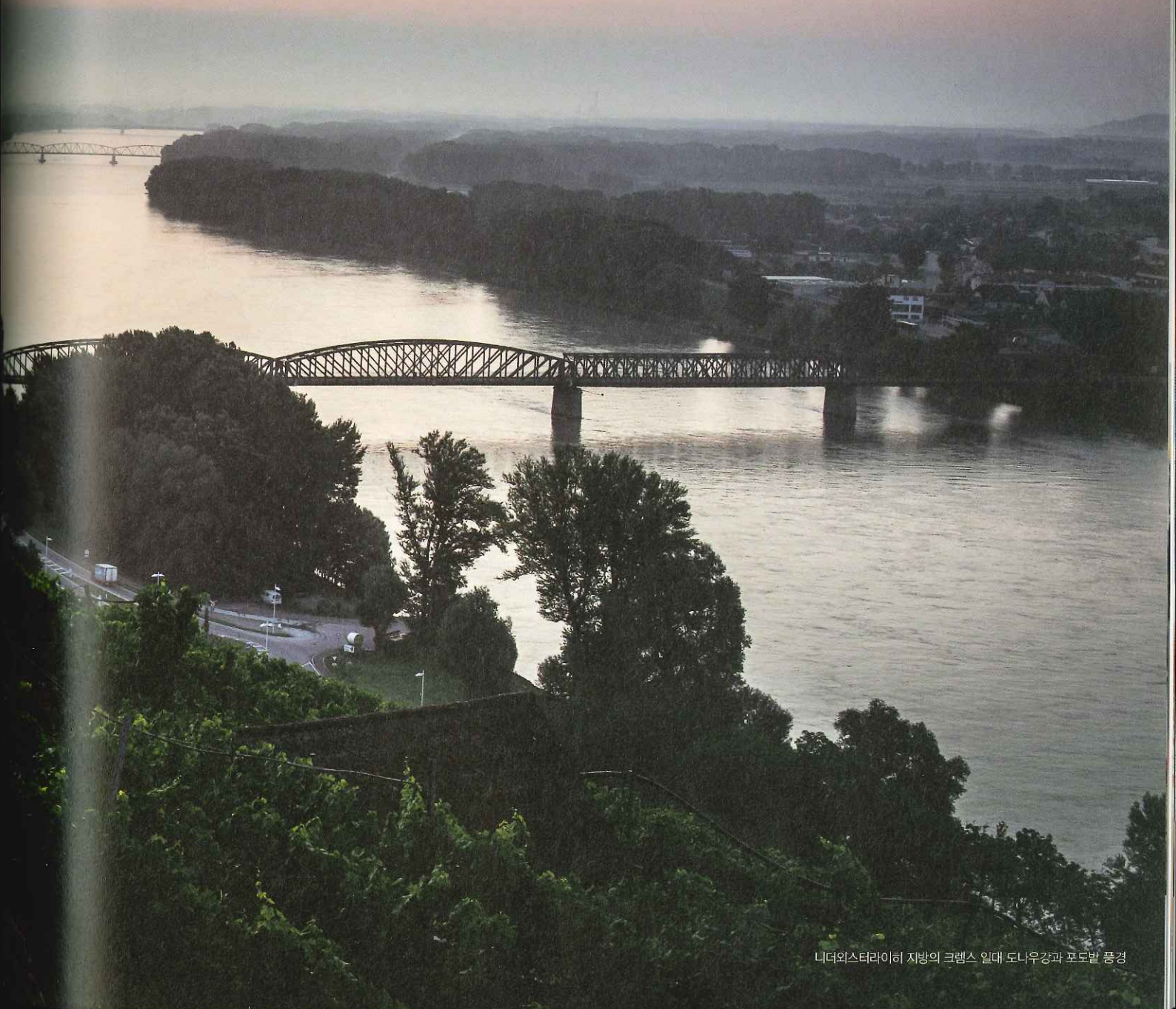
special theme



Austrian Wine

화이트 와인의 정수, 그뤼너 벨트리너 오스트리아 와인의 세계

이 글은 2013년 10월 17일~31일 기간, 중앙 유럽 5개 국가의 와인을 탐구하기 위해 현지에 찾아가간 기록이다. 제일 먼저 방문한 오스트리아 와인의 세계를 우선 정리한다. 이 기회를 빌어 여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오스트리아 대사관 무역 대표부 이수진 상무관, 그리고 현지의 Austria Wine Marketing Board의 Christian Dworan 매니저와 그리고 애써준 스텝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전한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오스트리아 와인 협회, 각 와이너리, 박현영





와인의 명산지인 크웬스 마을 앞의 도나우 강과 포도밭

들어가는 이야기

오스트리아는 중앙유럽의 제1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위도는 북위 47~48° 선상. 이 나라 와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청정한 도나우 강(Donau, 달리 Danube river)이 오스트리아의 북부 지역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österreich, Lower Austria)' 지방을 관류(貫流)하면서 오스트리아 최대, 최상의 포도밭을 일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일대에서 널리 번성하고 있는 그뤼너 벨트리너(Grüner Veltliner) 포도종의 화이트 와인이 오스트리아 와인의 정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때 우리들에게 오스트리아의 화이트를 독일 리슬링 와인의 아류(亞流)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두 나라가 서로 이웃하고 있으며 도나우 강줄기가 흘러 들어가고 언어, 문화, 제도가 서로 엇비슷해 와인의 세계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잘못 알고 독일 와인의 한가닥으로 보려 했던 것이다.

분명히 오스트리아 와인은 독일의 것과 무관하다. 독일의 주된 포도종이 리슬링인데 비해 이 나라의 것은 그뤼너 벨트리너이다. 이 포도종은 오스트리아 화이트 포도종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45%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도 리슬링의 포도종이 있다. 그러나 이는 4.1%에 불과하다. 아주 미미한 분량이어서 거의 무시될 수준이다.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본다면 오스트리아의 화이트는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잘 정제된 화이트 와인의 세계를 열고 있다 하겠다. 달리 오스트리아에서는 레드 와인의 세계도 함께 펼쳐지고 있다. 비엔나의 동남쪽에 자리한 파노니아 지역(Pannonian area), 즉 카르누툼(Carnuntum), 테르멘레기온(Thermenregion), 부르크엔란트(Burgenland) 등의 와인 산지에서 우세한 츠바이겔트(Zweigelt) 포도종이 온난한 기후 탓으로 넉넉한 레드 와인을 빚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노이제일 호수(Lake Neusiedle)의 수원(水源)이 레드 포도종의 생육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출처: 오스트리아 와인 협회



와인의 실제

오스트리아 와인의 세계에서는 화이트 와인이 레드에 비해 우세하다. 2012년 기준으로 215만 hL의 총 생산량 가운데 레드가 80.3만 hL, 화이트가 135만 hL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40:60의 형국이다. 이 나라의 포도 경작 면적은 모두가 46,000ha이다. 이 가운데 화이트가 30,300ha, 레드가 15,700ha이다. 와인의 대외 수출은 해마다 증대되어 2012년(잠정) 금액 기준 131.9백만 유로에 달하고 있다. 또한 특이점은 벌크 와인 대신 병입 와인의 수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스트리아 와인의 질적 변화의 진전을 의미한다.

와인의 환경은 순수해 질 좋은 와인이 나기에 매우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전국토의 2/3가 산악이며 유럽의 척추인 알프스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이 매우 질 좋은 와인의 산출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포도의 성숙기에 강물이나 호수에서 생성된 물안개가 포도의 이불(담요) 역할을 하면서 질 좋은 포도를 나게 하고 풍부한 낮시간의 일조량, 그리고 선선한 밤이 교차되면서 당과 산의 조화있는 생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포도품종

오스트리아는 이 나라의 입지적 여건, 즉 서늘한 북쪽에 자리잡고 있어 자연스레 화이트 와인이 우세하다. 현재 오스트리아의 포도 경작 면적은 46,000ha(2009년도 통계)이다. 이 가운데 화이트 와인이 65.8%, 레드 포도종이 34.2%를 점하고 있다. 포도 품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화이트의 경우, 그뤼너 벨트리너를 위시해 벨쉬리슬링(Welschriesling), 뮐러투르가우, 바이스부르군더(Weißburgunder), 리슬링, 샤르도네 등이 주류를 이루고 레드 경우에는 츠바이겔트(Zweigelt), 블라우프란키슈(Blaufränkisch), 블라우어 포르투기저(Blauer Portugieser)등이 메인 포도종을 이루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바는 이 나라 전체 포도종 가운데 그뤼너 벨트리너는 무려 3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바로 오스트리아 와인의 대표 주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달리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통계가 작성되기 10년 전, 즉 1999년도 오스트리아의 레드 포도종의 분포율은 27.2%였는데 2009년도 통계에서는 무려 34.2%로 늘어나 있다. 간결하게 해석되는 점은 이 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영향 받아 레드 와인의 증가 현상이 뒤따랐다는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기후 온난화의 영향도 한 몫한 것으로 추정된다.

크렘스탈 와인산지 앞을 유유히 흐르는 도나우강





수확기에 접어들어 그뤼너 벨트리너 포도

화이트 포도종

- 그뤼너 벨트리너(Grüner Veltliner) : 13,520ha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종. 화이트 종으로서 주로 북부의 니더외스터라이히 지방에서 번성한다. 도나우 강가에서 특히 빼어난 질을 보인다. 이 포도종의 특질은 프레쉬하며 드라이하고 매우 힘찬 질감이라는 점이다. 또한 조화된 산이 특징적이기도 하다.
- 벨쉬리슬링(Welschriesling) : 3,600ha
원산지인 이탈리아 프리울리(Friuli)로 여겨지며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다. 리즈링 블라스키(Ryzling Vlassky, 체코), 올츠리슬링(Olasrizling, 헝가리), 리슬링 이탈리아(Riesling Italicco, 이탈리아) 등이 그 사례이다. 산이 매우 확실하고 드라이하며 스파이시 프레쉬(spicy fresh)한 면이 있다.
- 바이스부르군더(Weißburgunder, Pinot Blanc) : 2,000ha
아주 미묘한 꽃의 아로마와 우아한 산을 보인다. 때로는 잘 익은 그린 애플의 향, 그리고 장기 숙성을 거치면 아몬드와 토끼콩의 톤을 보인다.
- 뮐러 투르가우(Müller Thurgau) : 2,100ha
스위스 육종학자 허만 뮐러(Hermann Müller)가 1882년 리슬링과 질버너의 크로싱을 통해 육종된 포도종. 그러나 훗날 리슬링과 마드렌느 로얄(Madeleine Royale)의 교배에서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일드한 산미, 조화된 질감, 우아한 피니시를 보인다. 이외에도 리슬링,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등이 있다.

레드의 포도종

- 츠바이겔트(Zweigelt) : 1,860ha
1922년 프릿츠 츠바이겔트 교수(Pro. Fritz Zweigelt)가 블라우프랑키쉬와 세인트 로랑(St. Laurent)의 두 포도종을 교배해서 얻은 것이다. 오늘날 오스트리아 레드 와인 주류이기도 하다. 달리 로트부르크(Rotburg)라고도 한다. 와인의 특질은 좋은 탄닌, 깊은 과일 톤의 아로마, 부드럽고 균형적인 질감이다. 주된 산지는 노이지들러제(Neusiedlersee)이다.
- 블라우프랑키쉬(Blaufränkisch) : 3,230ha
이 포도종의 원산지는 불분명하다. 중앙 유럽쪽에서 각기 다른 이름을 지니고 나타난다. 케르크란리오스(Kerkrantios, 헝가리), 프란코니아(Franconia, 이탈리아)라 불린다. 오스트리아의 블라우프랑키쉬는 미텔 부르크엔란트(Mittel Burgenland)에서 단연 으뜸이고 라이타베르그(Leithaberg)와 아이젠베르크(Eisenberg) 등지에서 많이 경작된다. 만종으로서 특이한 부케, 델리키트하며 스파이시하고 탄실한 질감과 분명한 탄닌의 힌트를 준다. 이외에도 블라우어 포르투지저, 세인트 로랑, 삐노 누아, 메를로, 까베르네 소비뇽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레드 포도종인 츠바이겔트

와인의 카테고리(품계)

한 나라 안에는 와인 전체를 몇 개의 카테고리로 묶어 질적 수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오스트리아도 자국의 와인 카테고리(품계)를 갖고 있다. EU 국가이기에 우선적으로 EU 규정에 따른다. 이에는 3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1) G.I 표지가 없는 와인 (Wine without Geographical Indication)

- 2009년 이전까지 통용되던 'table wine'이 이에 해당한다.
- 포도의 품종과 빈티지를 레이블에 나타낼 수도 있다. 다만 매 ha 당 9,000kg의 생산량을 충족 시킬때 위의 표지가 가능하다.

2) G.I 표지가 있는 와인 (Wine with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종전의 'Landwein'(프랑스의 뱅 드 빼이)이 이에 해당한다.

3) PDO 표지가 있는 와인 (Wine with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이는 프랑스의 AOP(Appellation d'Origine Protegee), 이탈리아의 DOP(Denominazione di Origine Protetta)와 같은 카테고리
- 종전의 'Qualitätswein'을 대체하는 카테고리이다.
- 이 카테고리의 와인을 빚는 데에는 35개 포도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두 가지 질적 와인, 즉 DAC 와인과 프레디카트 와인을 포함하고 있다.

DAC 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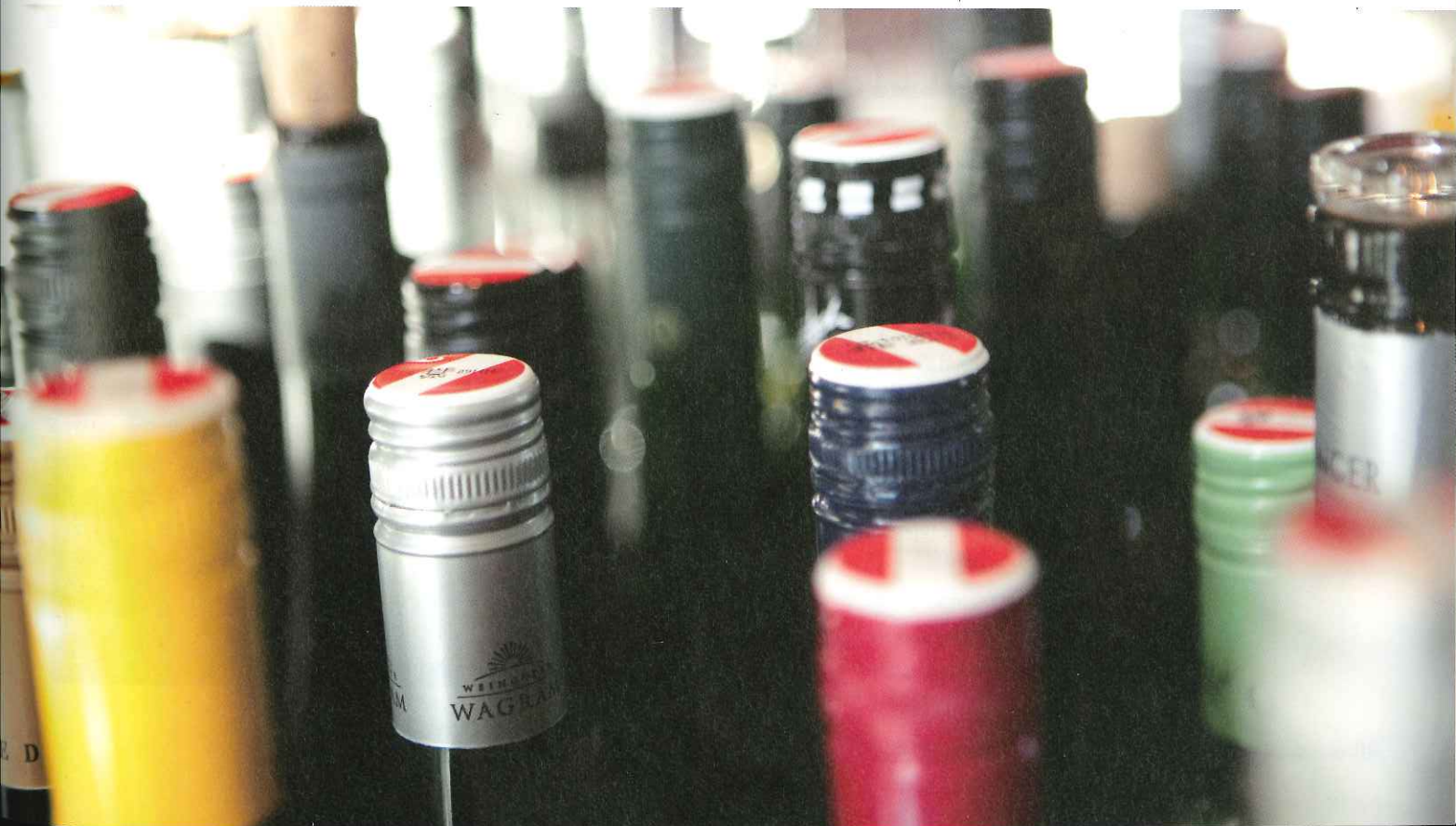
와인의 레이블에 DAC의 약자가 표지되어 있다면 이는 특정 지역에서 나는 질 좋은 와인을 가리키는 어휘 즉, Districtus Austriae Controllatus의 약자이다. 이는 레이블에 표지되어 있는 당해 지역에서 전형적인 스타일로 와인을 빚은 켈리티 와인을 가리킨다.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 정부(농산부)가 질 좋은 와인을 추구하고자 한데서 연유된 것으로 EU의 새 규정과 병행해 쓰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받은 DAC와인 산지는 16개의 산지 중 8개소가 이에 지정되어 있다.

- 바인피어텔(Weinviertel)
- 트라이젠탈(Traisental)
- 캄프탈(Kamptal)
- 아이젠베르크(Eisenberg)
- 미텔부르겐란트(Mittelburgenland)
- 크렘스탈(Kremstal)
- 라이타베르크(Leithaberg)
- 노이지들러제(Neusiedlersee)

프레디카트 와인(Prädikatwein)

이전까지 있던 품계를 그대로 이어 받아 질 좋은 와인의 품계로 유지된다. 이 품계는 다시 당도의 수준에 따라 7개의 카테고리로 나뉜다.

- 슈페트레제(Spätlese)
- 베렌아우스레제(Beerenauslese)
- 아이스바인(Eiswein)
- 슈트로바인/실프바인(Strohwein/Schilfwein)
-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Trockenbeerenauslese)
- 아우스레제(Auslese)
- 아우스브루흐(Ausbruch)





와인 산지

오스트리아의 와인산지는 크게 4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대단위 지역 안에 모두 16개의 와인 산지가 있다. 4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österreich) : 27,128ha
- 부르크렌란트(Burgeland) : 13,840ha
- 스타이어마르크(Steiermark) : 4,240ha
- 비엔나(Vienna) : 612ha

니더외스터라이히는 어떤 곳인가?

이번의 오스트리아 와인 탐구의 여행은 이 나라에서 가장 넓은, 그리고 가장 좋은 와인을 내는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österreich, Lower Austria) 와인 산지에 집중했다. 이 와인 산지를 특별히 찾아든 것은 독일에서 발원한 도나우 강이 바로 이 산지를 관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오스트리아 최상의 포도종인 그뤼너 벨트리너(Grüner Veltliner)로 빚은 화이트 와인이 나고 있어 그러했다. 바로 오스트리아 화이트 와인의 정수가 도나우 강가에서 그 맛과 향을 푸근히 담아 세상에 나온 것이다.

니더외스터라이히의 포도 경작 면적은 27,000ha, 오스트리아 전 산지의 60%에 상당하는 면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곳 산지는 오스트리아 와인의 메카라 할 수 있다. 수려한 도나우 강변의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 한 낮에 쏟아지는 뜨거운 일조량, 새벽녘 강상에서 마치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물안개, 서늘한 대지의 품속에서 포도는 한결 잘 익고 훌륭한 당과 산을 만들어 빼어난 화이트 와인을 빚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니더외스터라이히 산지에는 다시 특정 호칭을 지니는 8개의 고을들이 제마다 특색 있는 와인을 내고 있다.

- 바카우(Wachau)
- 캄프탈 DAC(Kamptal DAC)
- 바그람(Wagram)
- 카르눈툼(Carnuntum)
- 크렘스탈 DAC(Kremstal DAC)
- 트라이젠탈 DAC(Traisental DAC)
- 바인피어텔 DAC(Weinviertel DAC)
- 테르멘레기온(Thermenregion)

☉ 니더외스터라이히의 와인생산자들 Wieninger

비에닌저 와이너리

12시간의 비행을 끝내고 비엔나 공항에 도착, 곧바로 호텔에 짐을 놓고서 예정된 첫 번째 와이너리 비에닌저를 찾았다. 호텔에서 약 30여 분의 거리, 늦가을의 스산한 거리 풍경을 느끼면서 이 나라 특유의 제도인 '호이리거 (Heuriger 또는 Heurigen으로도 표지)'가 몰려있는 거리에서 '비에닌저'의 와이너리를 찾았다. 다뉴브 강가에 포도밭을 갖고 있는 이 와이너리는 이제 추수를 막 끝내고 와인을 빚는 작업을 한창 서둘고 있었다. 주인 프릿츠 비에닌저(Fritz Wieninger)가 우리를 맞이한 후 오래된 로마 시대의 까브로 안 내하고서 몇 가지 와인의 시음을 가졌다.

이어서 동생이 경영하는 호이리거를 찾았다. 이 역시 와이너리 이름을 그대로 옮겨 호이리거 비에닌저(Heuriger Wieninger)라 했다. 원래 호이리거 제도는 오스트리아의 황제 요셉 2세에 의해 와인 생산자가 자기의 와인을 내다 팔 수 있게 한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비교적 넓은 식당 홀에는 와인을 즐기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주인의 친절한 배려로 몇 가지 와인을 시음하면서 긴 여행에 지친 피로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수입처 미수입



CEO 겸 와인메이커 프릿츠 비에닌저



주인 한스 인퓌르 (좌에서 첫번째)



Karl Inführ K.G

칼 인퓌르 와이너리

비엔나에서 그리 멀지 않은 클로스터노이부르크(Klosterneuburg) 마을을 찾았다. 자그마한 아주 한적한 고을이다. 도나우 강이 멀리서 보인다. 매우 중후한 모습을 한 주인 한스 인퓌르(Hans Inführ)가 영어를 구사하는 딸을 데리고 나와 우리들을 안내해 주었다. 이 집은 오스트리아 스파클링 와인(쾨트)의 생산에 여러모로 이바지한 와이너리로 알려져 있다. 1947년에 처음으로 스파클링 와인을 샤프마 방식(Charmat Methode)으로 양조한 이력이 있다. 1977년에는 23카라트의 순금 가루를 넣어 스파클링 와인을 출시하기도 했다. 시음실에서 칼 인퓌르 와이너리가 자랑하는 2가지 와인을 테이스팅 했다. 수입처 미수입

Special Tasting

- Österreich Gold Trocken Mit 23 Karatigem, Grüner Weltliner 외
- Inführ Sekt Darling Extra Trocken Grüner Weltliner(86%) + Welschriesling(14%)

Weingut Dürnberg

뒤른베르크 와이너리

비엔나에서 곧장 북으로 체코의 국경에 인접해 있는 팔켄슈타인(Falkenstein) 고을의 뒤른베르크 와이너리를 찾았다. 이곳은 니더외스터라이히 와인 산지의 하나인 바인피어텔(Weinviertel) DAC 지역이다. 11세기 슬라브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한 옛 요새 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CEO 겸 와인메이커인 크리스토프 코르너(Christoph Körner)가 맛 좋은 점심 먹을거리를 장만하면서 우리들을 맞이해주었다. 이 집은 와인리뷰와는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3년 전 오스트리아 와인의 특별한 시음회 때 서울에 들린 바 있는 구면의 사람이어서 그러하다. 이곳 와인은 석회석 토양과 진흙의 토양에서 나오고 있어 훌륭한 미네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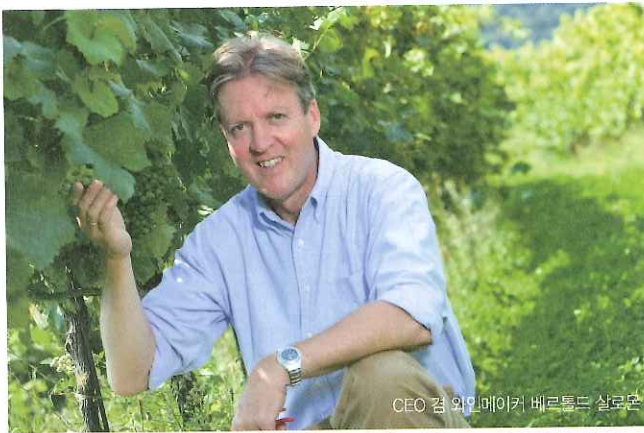
수입처 수미르 02-720-5741

Special Tasting

- Dürnberg Grüner Veltliner 2012 Alte Reben Weinviertel DAC
- Dürnberg Riesling Falkenstein Lagen(일등급 와인) 2012
- Dürnberg Burg(옛 성 이름) Falkenstein Weissburgunder(Pinot Noir) 2012
- Dürnberg Rabenstein Grüner Veltliner Weinviertel DAC 2012



CEO 겸 와인메이커인 크리스토프 코르너 (가운데)



CEO 겸 와인메이커 베르톨트 살로몬



Winery Salomon Undhof

살로몬 언드호프 와이너리

도나우 강이 그림과 같은 풍광을 펼쳐며 크렘스(Krems) 지역의 포도밭 앞을 유유히 흐르는 경관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았다. 옛 수도원 건물에 살로몬 언드호프 와이너리가 자리잡고 있다. 포도밭은 마을 뒷산 언덕에 펼쳐져 있다. 키가 훌쩍 크며 품위있어 보이는 주인 겸 와인메이커 베르톨트 살로몬(Bertold Salomon)이 우리들을 포도밭과 셀러, 그리고 테이스팅 홀에서 함께 시음을 도와주었다. 이집 와인은 한결같이 훌륭했다. 아마도 포도밭이 멋진 자리에서 잘 영근 포도로 빛었기에 그러한 듯하다.

수입처 CSR 와인 02-535-8407

Special Tasting

- Wachtberg 2012 Grüner Veltliner
- Undhof Kögl 2012 Riesling ler
- Undhof Kögl 2008 Riesling ler
- Von Stein 2012 Reserve Grüner Veltliner
- Von Stein 2011 Reserve Grüner Veltliner
- Steiner Kögl 2011 Reserve Riesling ler
- Steiner Kögl 2009 Reserve Riesling ler
- Pfaffenberg 2011 Reserve Riesling ler

Nikolaihof Wachau

니콜라이호프 바카우

크렘스 고을 앞을 흘러가는 도나우 강 건너편에 또 하나 질펀하게 발달한 포도밭 마을이 있다. 바로 마우텐(Mautern) 지역이다. 해가 질 무렵 크렘스의 살로몬 와이너리에서 강 다리를 건너 니콜라이 바카우 와이너리를 찾았다. 상냥한 주인 아주머니 크리스틴 자흐(Christine Saahs)가 와이너리의 내력을 간단히 이야기 해주었다. 1890년대 요셉 2세가 교회의 재산을 몰수, 공매 처분 할 때 지금의 가문이 인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다. 레스토랑에는 주변의 아름다운 강가를 찾아온 관광객들로 가득차 있었다. 기분 좋은 저녁을 들면서 다음 와인들을 함께 시음했다.

수입처 큐리어스 와인(iikewine@naver.com)

Special Tasting

- Nikolaihof Im Weingehrige Grüner Veltliner Tederspiel Trocken 2011
- Nikolaihof Klausberg Riesling Privat Reserve Halbtrocken 2008
- Nikolaihof Steinriesler Riesling Trocken
- Nikolaihof Vlnothek Riesling Trocken



와이너리 오너 크리스틴 자흐(좌)



Wein & Wachau

바인 바카우

아침, 마우텐의 와인 산지에서 나와 바카우 지역으로 향했다. 강물 따라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덮으며 멀리까지 뻗어있다. 건너편 햇살을 받는 언덕배기의 포도밭에는 붉고 노란 단풍잎이 그림 같은 풍경을 그리고 있다. 정말 도나우 강변의 와인은 순수한 자연에서 얻어진 것으로 그 질이 빼어날 수밖에 없어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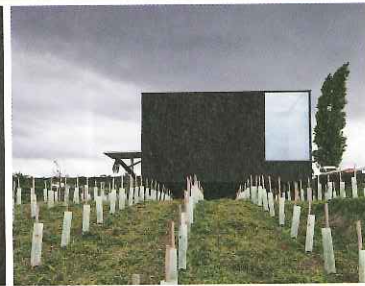
멜크(Melk) 지역의 한 종합 와인 상점에 들렀다. 아마도 바카우 지역의 모든 와이너리를 다 찾아 볼 수가 없기에 이 집 상점에서 지역의 대표적 와인 몇 가지를 시음토록 추천한 듯 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주인(Mag. Peter Gottwald)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음 와인들을 시음했다.

Special Tasting

- Kalmuck Wachau Grüner Veltliner 2012
- Yäger Riesling Federspiel Stenrigl Wachau 2012
- Schnelz Gelder Muskateller Wachau 2012
- Gritsch Vision Wachau Riesling Reserve 2011
- Johan Donabaum Spitzer Biern Neuburger Smagrad Wachau 2012
- Atzberg Grüner Veltliner Obersteilterrassen Smaragd 2012



주인 겸 와인메이커 프레드 로이머



Loimer

로이머 와이너리

캄프탈(Kamptal) 지역 랑겐로이스(Langenlois) 고을에 자리 잡고 있는 와이너리를 찾았다. 건물 외관이 매우 특이했다. 네모의 조립식처럼 보이는 건물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들어서니 아이들이 테이스팅 홀 한 쪽에서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생활공간을 와이너리에 옮겨놓은 듯 했다. 주인 겸 와인메이커 프레드 로이머(Fred Loimer)가 시음을 도와주었다. 그의 해박한 와인양조의 식견을 들으면서 새삼 도나우 강가를 예찬치 않을 수 없었다.

수입처 미수입

Special Tasting

- Loimer 2012 Riesling Kamptal
- Loimer 2012 Grüner Veltliner Kamptal
- Loimer 2012 Terrasen Grüner Veltliner Kamptal Reserve
- Loimer 2012 Langenlois Spiegel ler Grüner Veltliner Kamptal Reserve
- Loimer 2012 Langlois Steinmassl ler Kamptal Reserve
- Loimer 2007 Langlois Spiegel Grüner Veltliner Qualitätswein Trocken Kamptal (2008 새 카테고리 DAC가 도입되기 이전의 품계 제도인 'Qualitätswein'을 혼용하고 있음)

Schloss Gobelsburg

슐로스 고벨스버그

넓직한 마당, 그리고 사방으로 빙 둘러쳐진 옛날 수도원의 건물이 오늘날 고벨스버그의 와이너리가 되고 있다. 젊은 CEO 겸 와인 메이커인 미카엘 무스부르거(Michael Moosbrugger)가 반갑게 우리들을 맞이해 주었다. 서울에 들린 일이 있다고 하면서 정감을 표했다. 그의 응접실에서 부인이 정성스레 직접 마련해준 따뜻한 점심을 들면서 이 집의 빼어난 함께 와인을 테이스팅했다. 시음장에 선을 뵈 와인들은 그뤼너 벨트리너를 위시해 리슬링, 삐노 누아 등이었다. 한결 좋았다. 아마도 주인의 반듯한 예절과 친절감이 배어있어 그러한 듯했다.

수입처 나루글로벌 02-2057-7826



CEO 겸 와인메이커인 미카엘 무스부르거



Special Tasting

- Schloss Gobelsburg Grüner Veltliner Renner ler 2012 Kamptal Reserve
- Schloss Gobelsburg Grüner Veltliner Lammler 2011 Kamptal Reserve
- Schloss Gobelsburg Riesling Gaisberg ler 2012
- Schloss Gobelsburg Pinot Noir Alte Haide 2011
- Schloss Gobelsburg Riesling Tradition 2011 Kamptal Reserve



수입처 담당 루드비히 홀저



Winger Krems & Sandgrube 13

빈자 크렘스, 잔트그루버 13

아주 젊은 열정적인 친구가 현대적 시설을 갖춘 와이너리를 구석구석 안내 해주었다. 아주 친절했다. 입지는 도나우 강가 크렘스탈(Kremstal). 이 와이너리는 1,447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의 와이너리이다. 2005년 설립한, 아직은 짧은 역사를 보인다. 와인셀러, 영상실, 시음실 등이 최신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 모든 면에 있어서 거의 완벽했다. 오래도록 기억될 와이너리로 여겼다. 테이스팅 와인의 리스트를 정리한다.

수입처 수미르 02-720-5741

Special Tasting

- Riesling Vonden Terrasen 2012 Winger Krems
- Kremser Wachtberg Grüner Veltliner Kremstal Reserve 2011
- Kremser Pfaffenberg Riesling Kremstal Reserve 2011
- Kellermeister Privat 2012 Gelber Muskateller Qualitätswein Trocken
- Favory Aguileja Blauer Zweigelt 2010 Niederösterreich
- Glatt & Verkeart Blauer Zweigelt 2009

Weingut Huber

후버 와이너리

이번 방문의 와이너리는 또다른 와인산지인 트라이젠탈(Traisental)에 있는 라이더도르프(Reiderdorf)에 자리하고 있다. 와이너리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포도밭이 자리잡고 있다. 주변의 떼루아가 하도 좋아 이 집의 CEO로 하여금 좋은 와인을 빚어내는데 의욕을 톡구어 준 듯 했다. 테이스팅 홀은 매우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다. 잘 다듬어진 공간의 시음실에서 젊고 멋있는 주인 후버(Markus Huber)와 함께 와인 테이스팅을 가졌다. ㄴ

수입처 미수입



CEO 겸 와인메이커 마르쿠스 후버



Special Tasting

- Hüber Chardonnay Burg 2012 Sekt Aus Österreich
- Hüber Riesling Engelberg 2012 Trocken
- Hüber Riesling Berg erst Lagen 2008
- Hüber Riesling Eiswein